



봉우 컬럼

누구에게 배웠는가?

교육국을 담임하고 있는 나는 요즘 우리 젊은 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한다. “호랑이도 고양이에게 배우면 고양이처럼 사람에게 애교나 떨고, 아부나 하고, 주인이 주는 먹이나 먹고 산다. 그러나 고양이도 호랑이에게 배우면 몸집은 작지만 당차고 용맹스럽게 된다. 나는 너희를 애완용 고양이로 키우지 않았다. 정글을 넘나드는 호랑이로 키웠다. 그러니 매사 담대하라. 도전하고 모험을 즐겨라.”

그렇다.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영화 ‘늑대소년’에서도 봤지만, 사람도 늑대가 키우면 네 발로 기고, 짐승을 잡아먹고, 늑대울음소리를 내지 않더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27:17)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이는 연한 철이 강한 철로 인하여 단련되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승의 지식과 능력, 성품이 배우는 이에게 전달되어 스승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명감에 불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자들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원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하셨다. “나에게 배웠으니 나처럼 하고, 나보다 더 큰일도 하라.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명령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가르치는 스승의 보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가? 천하를 호령하는 호랑이는커녕 쥐에게 쫓기는 고양이 모습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산 위의 우뚝 드러난 동네가 되어야 하는데, 되레 귀신에게 사로잡혀 산다. 그것이 복음 정체현상의 원인이다.

용장 밑에 약졸은 없다. 엘리야에게 배운 엘리사,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처럼 스승을 닮고, 스승을 능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뉘게 배웠는지를 잊지 말자(딤후3:14).

교육국 담임 이초석 목사님의 행보는 이번 주에도 계속되었다.

17일 JC 아카데미에서 목사님은 곧 사회로 진출하는 한 젊은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셨다.

“성공의 비결은 ‘부지런+노력’이란단다. 사업의 정의는 이윤창출, 목적은 주의 일과 복지구현에 두어야 한다. 사업을 하려면 타이틀(무엇을 할 것인가), 타킷(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타이밍(언제 할 것인가)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지

번째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고 천대해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먼저 희생이 따르게 된다. 내 자존심을 먼저 내려놔야 남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절이라는 그릇에 품격, 품위를 갖춘다면 사람을 얻게 되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아침 메시지로 세월을 아끼라고 보냈는데, 너희는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풍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주셨지만 너

감이란 주인의식이요,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 책임감 있는 자가 상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점검이란단다. 점검부재현상이 불량품을 낳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다. 내가 젊은 시절, 은행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면 제복으로 갈아입고 지갑을 다 넣고 들어갔는데, 만일 저녁 결산 때 1원의 오차가 생겨도 반드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퇴근했단다. 1원이 별 것 아니지만, 그 정신으로 일하면 1억 오차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란단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아프다고 짜내지 않으면 나중에 대수술을 해야 경우가 있지.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야. 사



젊은이는 미래의 주인공이요 희망이다 (JC아카데미, 엘루체컨벤션, 6월 17일)

부당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최악을 도모하는 것은 단호히 No! 해야 한다. 자기 적성에 맞는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고객은 냉정하다는 것을 알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고객은 언제든 철새처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십일조와 공세금을 철저히 계산하여 하나님께든 국가에든 걸릴 것이 없게 해야 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인맥과 영맥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것이 날개요, 사다리요, 징검다리다.”

목사님은 사업을 했을 때와 목회 31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지식을 아낌없이 쏟아놓으셨다. 구구절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이었다.

이어 18일에 중고등부 세미나에서의 강의 내용이다.

“사람은 예절을 알아야 한다. 배움의 첫 번째는 인성교육인데, 그 인성교육의 첫

회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결과는 천지차이가 난다. 부디 목표를 정하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하여 창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라.” 앞서 14일에는 서울과 인천 중고등부 교사 및 청년대학부 임원들을 교육하셨다. “너희들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도라도라’라는 영화가 있었단다. 독일, 일본, 이태리의 3국동맹이 이루어지자, 일본 군부는 미 함대들이 있는 핵심요지인 진주만의 기습 공습을 결정하고 마침내 진주만으로 향하지. 하지만 이를 까맣게 모르는 진주만의 당직자는 애인과 즐겁게 지내다가 일본의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는 이야기란다. ‘도라도라’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알리는 암호이다.

내가 왜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는 거다. 그건 담당자가 무책임해서 그런 거다. ‘최선은 곧 책임감’이란단다. 책임

량은 정의거든.

내가 요즘 너희들을 자주 불러 모으는 것은 ‘삼밭의 썩대’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삼밭의 썩은 매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곧게 자라는 삼과 같이 있는 썩은 삼을 닮아 그 줄기가 곧다는 뜻이란단다. 즉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이다. 하나님의 환경 속에 있다면 너희도 삼밭의 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한다. 책임감은 관심의 자녀고, 무책임은 무관심의 자녀다. 그러니 매사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길 바란다.”

부뚜막의 소금도 놓아야 짜다. 우리 젊은 이들이 이 귀한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나라와 세계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6:4~15)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오를 수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건물을 다 올린 후에 지하공사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겉옷을 입은 후에 속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지하부터 잘 다지고, 속옷부터 챙겨 입는 것이 순서이듯, 어떤 일이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본이요, 기초라고 부릅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은 지식,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 인프라 구축이 없는 경제발전, 언젠간 다 무너집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으로, 신앙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이 위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기본학칙이 있듯 신앙인의 기본, 기초규칙이 십계명입니다. 기본영어, 기초중국어는 굉장히 쉽지요? 동일하게 이 십계명도 지키기 아주 쉽습니다. 하고자 하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계명을 안 지키는 자를 탈락시키고 멸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신5:29).

십계명 중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보응하셔서 그들이 고통 받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신6:14~15).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건강과 재물을 아물려 얻

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42:8).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를 아시지요?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십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주일에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입니다(요4:24). 그 계명을 잘 지킨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몰락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왕상11:11).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우상도 안 섬기니 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눅16:13)? 혹시 자식이 우상은 아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3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당신의 이름이 잊히는 것도, 당신의 영광이 다른 이에게 가

인의 날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그날에 충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목사님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눈도장 찍어야 진정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옛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온전하게 주일을 지내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인생에 성공은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20:11).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압축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입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저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엢6:2~3).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

은 당연히 큰 죄입니다.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이웃을 미워하지 맙시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였고,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창기와 함께 하겠습니까?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탐심으로 인해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전 목포 집회 때 어느

기초가 허약하면 공든 탑도 무너진다

여자가 대학시절 남의 구두를 하나 훔치고는 평생 죄책감에 살다 귀신들려 제계안수를 받으러 왔습니다. 회개하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혹시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는 길입니다.

제9계명은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이 여러 사람 잡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꾸며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제10계명은 ‘네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남편, 이웃의 자동차... 이런 거 탐내지 마세요. 내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행복이 옵니다. 내 직업, 내 재주, 내 얼굴이 제일 좋습니다. 행복의 커트라인은 당신을 불행하게 합니다.

높은 눈물항아리 되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 신앙의 기초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20:3~8).

이는 마태복음 22장 37~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는 말씀으로 함축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구조조정이 답이다

국내에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3대 조선(造船)회사 중의 하나인 D사는 누적 손실을 1.5조라고 2014년 재무제표를 통하여 보고하였으나 계상된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재고자산 및 계약자산등의 총계가 약 9.8조인데 보수적으로 재평가할 경우 손실금액은 더 상승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손실의 진원을 공격적으로 수주한 해양플랜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란 바다에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 등의 해양 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제반 사업을 의미하며, 국내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은 건조(建造)인데, 이와 같이 발표된 급진적인 손실에 대한 이유를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계약에 대한 구조입니다.

발주자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핵심설비 및 기본설계를 공급받도록 했기 때문에 수주한 회사(이하 ‘회사’)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재에 대한 부분만 자체매출 및 매입으로, 지정된 곳에서 조달받는 부분은 발주자가 공급하도록 하여 회사는 임가공에 대한 용역 및 설비임대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따라서 업종의 특성상 빈번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전언하지만 설계자를 발주자가 지정하였기 때문에 계약의 구조가 임가공 및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으면 발생한 추가적인 간접비, 금융비용, 그리고 기 발주된 자재에 대한 처분손실을 회사는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전인수로 인한 오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수주산업은 예정원가에 기초한 공

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나 실질적인 개별손익은 공사잔금이 입금되어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공통비에 대한 효율개선, 위험분산, 그리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원활하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인하여 무리한 수주를 감행하고 현금기준이 아니라 실적기준에 따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PC의 운영시스템(OS)에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생길 때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포맷(FORMAT)을 한 후 최소의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만 갖고 있을 때 원활한 구동이 되듯, 회사도 새로운 포맷을 하는 자세로 정리해야만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1년간 총회장 목사님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외부환경과 어려움에 한 번도 일회임비 하지 않으시면서 최소의 인원으로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고 계십니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그분의 혜안이 다시 한 번 생각납니다.

임윤석

내 삶에 1등이신 하나님

최근 동영상상을 통해 읽은 내용이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괴로워할 때도, 아무도 내 곁에 없 다 생각 들 때도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 등입니다.”

필자는 26년 전에 오직 예수만을 삶의 최우선에 두시는 한 분을 만났다. 그 분은 예수를 위해서라면 가정도, 부모형제도, 사업도 뒤로 밀어 놓으시는 분이셨다. 현찰 300억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 축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올림피아공원으로 들어가라 하셨다며 단호히 거절하셨다는 그 분! 미국시민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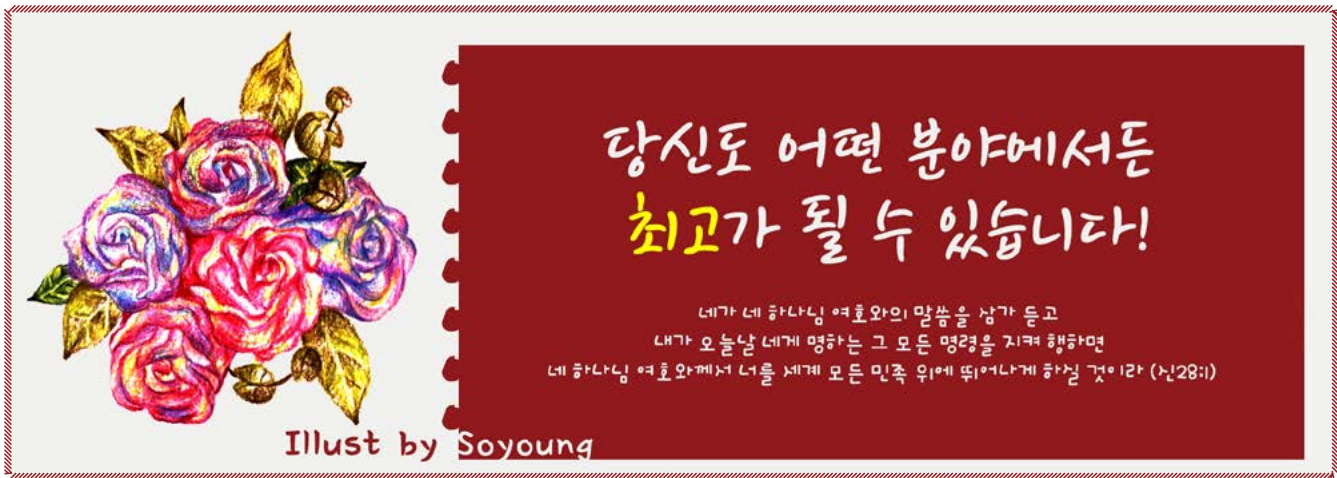
가져와서 미국을 등에 업어야 세계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아니라 예수를 등에 업어야 한다며 거절하셨던 그 분!

지금도 오직 하나님만을 1등으로 모시고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의 담임을 스스로 맡으시고, 또한 전 성도들에게 매일의 영적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온 밤을 지새우시는 그 분, 우리 목사님이다.

타 교단의 목사님이 철야 예배에 은혜 받으러 왔다가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단다. “나는 저 종이 불쌍하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저 종은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없다.” 하시더라.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도 목사님처럼 내 삶에 1등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본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 생명의 말씀 ::

떨어지지 않는 사과

1991년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불어 닥쳤다. 잘 익어가는 사과들이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대부분 땅에 떨어졌다. 농부들은 망연자실했고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에 대해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과를 치우던 어느 농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몇 개의 사과를 보는 순간, 그 농부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것은 ‘아직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잘 포장하여 별명을 붙여 판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사과가 판매되는 시기가 대학입시와 맞물리면서 농부의 사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사과’가 되어 불티나게 팔려나간 것이다. 태풍으로 인해 일반 사과보다 맛도 덜하고, 모양도 곱지 않았지만 태풍을 견딘 사과였기에 사람들은 기꺼이 비싼 값을 주고 사과를 샀다.

사람들은 실패한 이유를 꼭 자신의 약점에서 찾는다. 이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최고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모압 왕

에게 조공을 바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에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약점은 강점이 되었다. 에훗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 방심의 틈을 타서 칼을 숨기고 들어가 모압 왕을 죽일 수 있었다. 그의 부족함이 강점이 된 것이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그 많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 세 번씩 간구했던 사도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게 됨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큰 기적과 축복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이 나의 무기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후12:10).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가시고기와 우렁이의 사랑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수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멀리도 가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고 지키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가시고기들은 멀리도 가지 못하고, 애비 가시고기 옆에서 맴돌고 있다. 새끼에게 먹일게 없어서 자신의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고 가시고기는 최후를 맞는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다.

또 어미 우렁이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적들로부터 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그 몸속에 알을 낳아 품는다. 제 몸에만 알을 낳으면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간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받게 될까?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듯하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인간의 유대가 무

너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회사 내에서도 서로간의 유대가 상실되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끝없는 경쟁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팀워크 향상이니 기업문화 강화니 하는 명칭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심지어 해병대 캠프에까지 함께 다녀오면서 유대감을 높이고자 한다. 하지만 모두들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공동체는 가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대의 뿌리는 식구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제아무리 크고 훌륭한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전화 드리자. 이번 주말에 찾아뵙자. 그리고는 작고 여위신 그분을 힘껏 안아드리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참으로 슬픈 일이지 않나? 곁에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큰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니 말이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 교단소식 ::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제2회 젊은부부세미나

지난 18일, 청장년부 주관하에 제2회 젊은 부부 세미나가 열렸다.

이시대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부동산, 증권, 사업 분야에 성공한 분들을 강사로 섭외하셨다. 모든 강의는 세미나에 참여한 청장년부원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시대 목사님은 세미나 서두에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밭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잠19:2)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부자가 되길 원하면 자신이 부자가 되는 길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이를 수 없듯 부자가 되는 지식도 배워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강의를 잘 경청하여 모두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라고 독려했다.

모든 강의는 강사들의 현장경험과 노하우, 청중을 향한 진솔한 마음이 녹아 있었다. 첫 강의는 동서남북 부동산 대표 문루라 집사가 준비하였다. 문 집사는 본인의 부동산투자 손익경험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부동산 투자의 유의점을 두루 소

개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의 개발호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지역이용계획을 잘 알아야 하며, 구입하고 싶은 땅이나 건물은 밤, 낮, 새벽 등 시간대별로 열

번 이상 방문해야 실수 없이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약통장에 적극 가입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들어두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가입을 강력 추천하였다.

두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미경 권사의 증권에 대한 강의였다. 이 권사는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증권시장과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했다. 특히 주식에 투자할 때는 언제든지 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동안 코스피의 흐름을 미루어볼 때 시장이 회복되는 시간은 평균 4.4년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장기적인 주식투자에 임할 것을 조언했다. 더불어 워렌 버핏과 같은 대가들도 투자할 때 원금보존을 가장 우선시 하는 태도를 배울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적립식 투자, 노후를 대비하고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저금리시대에 주목할 만한 고배당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적극 추천했다.

세 번째는 사업에 관한 주제로 이후경 장로가 강의에 임했다. 대한 FA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이후경 장로는 현재 25년째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지만, 과거 가난하고 몸이 아파서 창업에 뛰어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력히 심어 주었다.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저금리시대인 만큼 자신의 돈보다는 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인맥관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위기는 기회이기에 불황이라는 지금이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강사들의 열띤 준비로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시대 목사님은 모든 강의를 마무리 하시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꾸준히 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 중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꼭 붙잡고 꾸준히 실천하여 다음 후세대의 강사는 여기 앉은 여러분이 되십시오.”라고 모두에게 도전적인 마음을 심어주셨다.

청장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단의 젊은 부부와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어 갈 계획에 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김고은

khjc77@hanmail.net

오늘 메시지 **답신**

‘목사님은 우리가 보낸 답장을 읽으셨 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염려마세요. ‘약속은 생명’이라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이 단에서 답장을 읽으신다고 약속하신대로 읽고 계십니다. 답장 확인 여부를 묻는 분께 이렇게 답장도 하셨습니다.**

♡♡♡ **고맙고 사랑해. 확인하는 것이 꼭 날 닮아서 좋아. 매사 점검부재현상은 사고원인... 앞으로 무엇이든지 확인하는 습관 100% 찬성!**
-봉우 이초석

✱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 꿈꾸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이다’**

목사님, 아깝처럼 꿈꾸는데 돈 들지 않는다고 하셔서 큰 꿈을 꿔더니 꿈의 대가를 혹독히 지불했습니다. 세상에 꿈짜가 없다는 말씀을 새삼 경험으로 체감하면서 그 꿈이 4차원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 같아 저의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꿈꾸게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 **웃고 힘을 냅니다!! ~ 오늘 사진 나~무 멋있고 미소 짓게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되어吧 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 지도 기대가 되지만, 매일매일 함께 보내 주시는 사진과 찬송 또한 기대가 됩니다. 늘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팔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환란과 역경에든지 Don't ever give up!!! 사랑합니다! 목사님♡

✱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4,000명 돌파를! 3년 안에 100만 명이 될지아다 -미국에서**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골다공증(骨多孔症)을 극복하려면

골다공증이란 뼈 조직이 부실해져서 뼈에 구멍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의 신진대사 작용이 잘 안되고, 칼슘성분이 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 골격의 구조가 스펀지같이 되어 골격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 합니다.

골다공증은 대개 폐경기 이후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나타나기 쉬운데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특히 많이 발견됩니다. 골다공증의 증상으로는 신체 일부가 열이 나거나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특정 부위가 차가워져서 머리가 시리거나 엉치나 무릎에 찬바람이 오고, 또한 신경이 예민해지고 흐린 날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 외에도 쉽게 골절상이 오는 등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식에서 칼슘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편식을 금합니다. 사과, 우유, 멸치를 많이 먹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D 합성이 이루어져야 칼슘이 흡수가 잘 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많이 먹는 게 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산약)를 차로 많이 마십니다. 마(산약)는 소화기능을 향상시키고, 칼슘의 흡수력

을 높여서 우리가 먹는 칼슘이 실질적으로 뼈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 하루 30분 이상 자외선에 노출시켜 피부에서 비타민D의 합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루 30분씩 운동을 하게 되면 자외선을 통해서 칼슘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에 쓰는 한약으로는 다리가 무력해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간(肝)이 허하다고 판단하여 쌍화탕에 녹용, 자하거와 같은 보약을 통해서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며, 소변이 잦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등의 신(腎)이 허할 때는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복분자, 자하거를 함께 복용하여 신의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폐경이후 여성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에는 녹각, 자하거, 당귀, 천궁과 같은 약재들이 여성호르몬을 보충해주면서 골다공증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이 의심이 가는 분들은 잦은 커피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들보가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 Global Study ::

♣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Don't forget that customers don't wait for the product to get better in quality.
不要忘记顾客不会等待品质好起来

♣ **이제 게으른 자여! 거미줄만 걸지 말고 거미를 부지런히 잡아라.**

So now you lazy people!

Don't just clean the spiderweb but catch the spider itself.
从此懒惰的人! 不要光除掉蜘蛛网, 要殷切地抓蜘蛛

